

대학인의 사랑

김 경 신

전남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오 해도 어김 없이 옛 얼굴들을 떠나보내고 새 얼굴들을 맞이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이제 이 때쯤이면 사 년이란 유예기간을 보내고 많은 젊은이들이 학교를 떠나 거친 바다로 진수해 나아간다. 애송이 교수 시절에는 이맘때가 되면 진정으로 우울해했던 적이 많았다. 가르침에 대한 지나친 욕구에, 인간관계에 대한 세련되지 못한 몰입 등이 사랑스런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동안 나로 하여금 몸살을 앓게 하곤 하였다. 또한 적어도 그 때는 그들도 조금은 그런 것처럼 보였다. 불과 몇 년 전이지만 그 시절의 인간애는 지금보다는 덜 많아진 것 이었을까?

잎이 다 쟁버린 앙상한 가로수 길을 따라서 머리가 하얀 노교수가 넓은 책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만 보아도 애정과 존경과 일말의 애恸함으로 눈물이 나올 것 같다는 제자들의 감상적인 이야기에 나 역시 동류 항적인 기분에 젖어들곤 하던 시절이 있었다. 세월이 순수의 칼날을 무디게 하듯이,

시절이 우리가 알아왔던 정서의 방향을 돌려버리듯이, 이제는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도 그런 시절이 그리 뚜렷이 각인되지 못한 듯 느낀다.

대학은 대다수 구성원의 연령적 특성 때문에 낭만의 집결지로 알려져 왔고 청춘과 사랑의 정서적 기운 역시 두드러진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젊은이들의 이 성간 사랑과 동성간 우애 이외에도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은 그리 강조되지 못한 듯하다. 해마다 오월이 되면 교문 앞에 꽃장수들이 몰려오고 일부는 진정으로, 또 다른 일부는 감홍으로 몇 송이의 꽃을 스승에게 바치는 장면이 어우러지지만 오히려 그러한 자리에서마저 당당해지지 못하는 것은 스승 만의 역할적 공허이겠는가? 인간관계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스승과 제자 간의 기대도 사랑도 나약해지고 있는 요즈음이다.

나에게도 한동안 제법 애정을 기울였던 제자가 있었다. 졸업한 후에도 일이 낸 정도 연락이 있었고 만나기도 했었는데 실직

을 하고 실연을 하고, 어쨌든 상실의 경험을 많이 하면서 연락이 두절되었다. 어느 때는 너무나 궁금하고 그리워서 이리저리 연락을 시도해 보았지만 전혀 땅을 수가 없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나 자식을 잊은 것 같은 심정이 제법 오래 계속되었다. 물론 지금도 셋은 듯이 사라진건 아니지만 이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면서 제법 감정에 나태해져 있는 형편이다. 한때는 스승으로서 나 자신이 무슨 부족함이 있었는지 조금은 자책하기도 하였고, 어렵고 힘들 때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담스런 존재였는가 하며 회의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서운한 기억들은 쌓이고 쌓여서 새로이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수축시키곤 한다. 언젠가 또다른 실연의 상처를 받기 전에 나도 내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추스려 두어야 한다는 이기적이고 유치한 발상을 하기도 한다. 사랑의 몸짓은 점점 어색해지고 단순히 가르치는 기능으로 변화해감을 느낄 때 스스로에 대한 실망으로 서글퍼지기도 한다.

어쩌면 이러한 느낌과 과정이 교육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너무나 감상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나 자신의 진지한 성찰이 부족한 채 그것이 인간이든 무심한 세월이든 다른 어떤 것을 탓하는 어리석음으로 보여지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승과 제자는 정서가 매개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의 한 유형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친숙하든 그렇지 않은 거리에서 스치듯 만나는 사람들과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가끔은 그리워해도 좋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나아가 더 욕심을 낸다면 한두 마디의 기억이라도 그들에게 남아 그들 인생의 작은 잣대가 되어

준다면 더 바랄 나위가 있겠는가?

다소 방향이 빗나간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대학생들이 인간관계 맷는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 보면 생활연령의 수준과 상당히 괴리된 경우가 많음을 느끼곤 한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날 때부터 남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태어나 성장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인간은 남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가 형성되어 하나의 원숙한 사회인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 개인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들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어느 정도 확고한 자아가 형성된 후에라야 사회적 상호작용의 주체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인간관계 속에서의 다양한 감정적 단련도 이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자아형성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젊은이들은 임시라는 독특한 제도 때문에 서구의 젊은이들에 비해 정체감 수립이 지체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자아정체감 수립 역시 타인과의 건강한 인간관계 수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인간관계의 미숙성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큰 단점이기도 하다.

대학생이라면 이미 초기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기임에도 이성교제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나 세련된 예절 또는 기술이 갖추어 지지 못함에 비추어 볼 때, 스승과의 인간관계의 기술이나 기본 예절들을 습득하게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어쩌면 이러한 모든 것들도 교육자의 과업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들이 어린 시절에 습득해야 할 당연한 인간관계 기술을, 다 자라 성인이 된 다음에 뒤늦게 습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울 뿐이다. 그러나 대학이 단순히 지식 주입에 치우쳐 우수

한 산업전사를 배출해내는 데만 최종 목표를 둔다면, 스승과 제자의 인간관계는 사실 지식 전달자와 전수자 관계 이상을 벗어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흔히 요즈음 스승의 역할론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학생들의 잘못을 전통적인 잣대로 엄히 다스리지 못하는 가치관적 혼란과 '그 실천적 무능성에 직면하곤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사회의 가치관을 선도해야 하는 입장에 있음을 감안해 본다면, 스승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용기를 내는 것은 학생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다. 그리고 친밀감에 대한 개념 정립이 올바로 이루어진다면, 다소 보수적인 교육적 태도가 결코 스승과 제자 간의 친밀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뚜렷한 교육적 태도는 스승 자신의 건강한 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독립성과 같은 인성 특성과 친밀감은 반대되는 성격 특성처럼 보이지만 상호연관된 기술이다. 독립적이 될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은 결코 친밀해질 수 없다. 독립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의 어두운 면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친밀감을 단련시킬 수 있고, 보다 깊숙히 상대방의 생을 나누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인 모두는 인간관계나 사랑과 같은 정서 개념에 보다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재사회화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수련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쉽게 단련되지 않는 사람이 선생이란 직업을 가지기엔 다소 부적당하지 않은가 생각할 때가 있다. 그저 단순히 물건을 만들거나

팔거나 사는 직업이 아닌 것인 만큼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매몰되고 또한 상처받기도 하는, 감정적으로 다소 혐한 직업이 아닌가 하는 얘기다. 물론 그 인간관계는 무한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전 생애 중 일부분으로서 스쳐가는 관계일 수도, 통과의례처럼 의무적인 관계일 수도 있어서 가족관계처럼 치명적 영향을 주고 받지는 않음이 분명하다. 그렇다 해도 매년 이별식을 치르는 직업이라면 감정적으로 매우 단련되어야 함은 사실이고 또한 무디어지지 않으리라고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내 눈에는 아직도 제자들이 내 못다한 애정적 욕구를 남김 없이 퍼부어주고 싶은 어린 대상들일 뿐이다. 나는 자라지 않고 그들이 자라는 것을 뚜렷이 느끼지만 그리고 언젠가는 일치되는 어떤 점이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내가 서있는 자리를 논스톱으로 지나버려서 서로가 일별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서글픈 인간관계로 남기에는 진정으로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애정이 지나쳐 실망으로 보답받는다 하여도 카탈루스(Catullus)의 푸념처럼 "나는 사랑하고 또한 미워한다. 왜냐고 묻는다면, 나도 그 이유를 모른다. 단지 느낄 뿐이다. 나는 둘로 분열되어 있다."고 말할 뿐이다. ■■■

김경신/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가정학과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목포대 가정관리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전남대 가정관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주요 저서로 『가족학』(공저), 『자녀교육열파 대학입시』(공저) 등이 있고, "부모와 대학생 자녀 간의 가치전달 연구", "부모와 또래에 대한 청소년의 지향성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